조석으로 법 받아 심인으로 지니다가…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2〉

배휴의 서문

당나라 하동 배휴가 모으고 아울러 서문을 쓴다.

대선사가 계셨으니 법휘는 희운이고, 홍주 고안현 황벽산 취봉 아래 주석하셨다. 조계 육조의 적손이요, 백장의 사법 제자이며, 서당의 법질이시다. (이하 원문 번역은 경허스님이 엮고 범어사에서 펴낸 〈선문촬요〉를 저본으로 한국간화선연구소에서 했다.)

홍주는 지금의 강서성이다. 황벽사는 강서성 이평에 있다. 선종 사찰은 대부분 깊은 산 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분지가 있는 지형에 자리 잡고 있는데, 황벽사 또한 예외가 아니다.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 황벽사는 허름한 창고 같은 건물이었다. 옛 법당은 벌써 허물어졌고, 마을사람들은 문화혁명 때 홍위병의 눈을 피해 창고처럼 법당을 지었다고 한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니 흙바닥이었고, 정면에는 '전심법요'라는 글자가 주련처럼 크게 걸려있었다. 법당 앞 넓은 분지의 한복판엔 거대한 대웅전이 중창불사 중이었다. 아마 지금쯤은 완공되었을 터인데, 규모는 크겠지만 급작스럽게 짓느라 격을 갖추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60대 중반으로 순박한 인상의 주지 심공(心空)스님과 황벽촌 불자들의 환대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논둑길 너머 산자락 대숲에 있는 황벽선사의 묘탑을 참배하며, 전심법요를 전해주신 은혜에 감사했던 기억이 새롭다.

황벽스님은 육조혜능의 4세이다. 육조의 법은 남악을 거쳐 마조에게 전해졌다. 마조의 많은 제자 중에 서당, 백장, 남전 등이 뛰어났다. 우리나라 신라 구산선문의 대부분이 마조 문하에서 개창되었다. 특히 맏상좌 서당지장의 법을 대한불교조계종 종조로서 추앙받는 도의국사께서 우리나라로 가져와 조계종의 뿌리가 되었다.

백장선사는 "강서의 선맥이 모두 동국으로 가는구나!" 하고 탄식했다고 한다. 서당의 직계로 홍척의 실상산문(남원 실상사)과 혜철의 동리산문(곡성 태안사) 그리고 도의국사의 손상좌인 체징의 가지산문(장흥 보림사)이 있다.

한편 〈마조록〉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한다.

서당, 백장, 남전이 마조스님을 모시고 달구경을 하던 차에 스승이 말하였다.

"바로 지금 같은 땐 무얼 했으면 좋겠는가?"

서당스님은 "공양하기에 좋겠습니다." 했고, 백장스님은 "수행하기에 좋겠습니다." 하였다. 남전스님이 소매를 뿌리치면서 그냥 가버리자, 스승이 말하였다.

"경(經)은 서당에게 들어가고, 선(禪)은 백장에게 들어가는데, 남전만은 격외로 벗어났구나!"

스님은 단지 최상승만을 지니고, 문자의 그림자를 여의셨다. 오로지 한마음만을 전했을 뿐, 다시 다른 법은 없었다. 마음의 체가 비어서, 만 가지 인연이 모두 공적했다. 마치 큰 태양이 허공 가운데 떠올라 광명을 비추는 것처럼,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셨다.

'최상승'이란 달마가 직접 전한 불법의 본령이자, 조계정전의 정통선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남종선의 돈오법문을 가리킨다.

이 법을 깨닫는 데는 오늘과 옛날이 없고, 얕고 깊음도 없다. 이 법을 설하는 데도 알음알이를 세우지 않고, 종주(宗主)를 내세우지 않으며, 파를 형성하지도 않는다. 즉시 이것이며,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난다. 이런 다음에라야, 본래의 부처가 되는 것이다.

해서 그 말씀이 간명하고, 그 이치가 직절하다. 그 도는 준엄하고, 그 행은 고고하시다. 사방의 수행자들이 황벽산을 바라보고 달려와 운집했다. 선사를 뵙고 깨치니, 왕래하는 대중의 수가 항상 천 명을 넘었다.

내가 회창 2년(842) 종릉의 관찰사로 재임하면서, 스님을 산중으로부터 고을의 용흥사에 모시고 조석으로 도를 여쭈었다. 대중 2년(848) 완릉의 관찰사로 재임할 때, 다시 정중히 개원사에 모시고 조석으로 법을 받았다. 곧 물러나와 기록하였는데, 열 가운데 한둘 밖에는 얻지 못하였다.

이를 심인(心印)으로 삼아 지니고 다니면서, 감히 드러내어 발표하지 못했다. 이제 신령스런 경지에 드신 그 정밀한 뜻이 미래에 전하여지지 못할까 두려워서, 드디어 이 기록을 꺼내 문하생인 태주, 법건스님께 드려서 황벽산의 광당사로 돌아가 장로들과 청법 대중에게 지난 날 친히 듣던 가르침과 차이가 없는지 알아보았다. 때는 당나라 대중 11년(857) 10월 8일에 쓴다. **범어사 주지**

주성원의
기초 교리 〈47〉

육신통 · 해탈 위한 선정의 4가지 덕목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
③ 사신족(四神足)

명상을 통해 어느 정도 마음의 경지에 도달했다 해도 명상에서 깨어나면 다시 번뇌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죽을 때까지 꼼짝 않고 명상 상태에 계속 머무를 수도 없다. 이렇듯 명상 그 자체는 수단일 뿐 목표인 열반은 아니다. 그래서 붓다는 보다 근원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연기법을 '통찰'했고 중도를 '실천'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붓다가 의식을 집중하는 명상인 선정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정은 열반을 증득하려는 수행자에게 필수적이다. 선정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의 깊은 곳까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정을 위한 초기불교의 대표적인 실천행이 바로 사신족(四神足)이다. 사신족은 사여의족(四如意足)이라고도 하며 사여의분(四如意分), 사여의(四如意)라고도 한다. 뜻한 대로 할 수 있는 신통을 얻기 위한 뛰어난 선정에 드는 네 가지 방편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신통이란 수행명상을 통해 갖추게 되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말한다. 보통은 어디든 마음대로 갈수 있는 신족통(神足通) · 세상 어느 곳이든 꿰뚫어 볼 수 있는 천안통(天眼通) · 어느 곳의 소리든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천이통(天耳通) ·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타심통(他心通) · 전생을 알 수 있는 숙명통(宿命通) · 번뇌를 모두 소멸해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누진통(漏盡通)등의 육신통(六神通)을 뜻한다. 이러한 신통을 얻기 위해서는 뛰어난 선정에 들어야 하고 그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반[四神足]이 있어야 한다.

그 첫째가 욕신족(欲神足)이다. 욕신족은 우선 무언가를 얻으려면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신통을 얻기 위한 뛰어난 선정에 들고자 한다면 우선 그 선정에 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마음에 집중하여 마음을 통일하는 것이 욕선정이고 이 과정에서 얻어진 선정의 상태를 욕삼마지(欲三摩地)라고 한다.

두 번째는 정진신족(精進神足)이다. 무언가를 얻기 원했다면 그 다음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뛰어난 선정에 들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정진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정진신족이고 이로부터 얻어진 선정의 상태를 근삼마지(勤三摩地)라고 한다. 세 번째는 심신족(心神足)이다. 심신족이란 뛰어난 선정에 들려고 하는 마음에 집중하고 그 마음의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로 인해 얻어진 선정의 상태를 심삼마지(心三摩地)라고 한다.

네 번째는 사유신족(思惟神足)이다. 사유신족이란 뛰어난 선정에 들려고 깊은 통찰력으로 관찰하고 사유하며 그 마음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로 인해 얻어진 선정의 상태를 관삼마지(?三摩地)라고 한다.

사신족은 이와 같이 뛰어난 선정을 통해 열반에 이르기 위한 수행의 한 덕목이다. 선정에 들고자 하는 바램과 실제로 선정에 들려고 하는 노력과 선정에 들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선정에 들려고 하는 주의 깊은 통찰과 관찰을 통한 삼매의 힘을 말한다. 이에 기반 해서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신통의 힘이 나타나므로 사여의족(四如意足)이라고도 한다.

초기불교의 명상은 의식을 집중하는 선정이고 사신족은 이 선정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상윳따 니까야〉라고 하는 초기경전에서는 이 사신족을 닦으면 세간의 이쪽 언덕[此岸]에서 출세간의 저쪽 언덕[彼岸]으로 갈 수 있다고 설한다. 또한 사신족에 네 가지 성취수단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에서 성취란 일반적인 성공, 특히 신통과 같은 정신적인 성취를 뜻한다. 이 정신적인 성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위에서 한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통, 구체적으로는 육신통을 뜻하고 한편으로는 번뇌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성취를 뜻한다. 그러므로 사신족은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선정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㊷

이러한 보살은 성문聲聞의 지위에 오른 사람에게서 법을 들을 때조차 마음에 의심은 없다.

〈소품(小品) 반야바라밀경〉

진짜 고수(高手)의 화광동진

벌써 근 40년이 다 되어간다. 대구에서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때 빠져든 것이 무협지였다. 손바닥으로 바람을 날리고, 손가락 끝에서도 바람을 날리는 이야기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다. 훗날 "아, 그때 세계문학의 명작을 읽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이미 다 지난 일이다.

무협지에는 수많은 고수가 나온다. 고수는 무술이 빼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칼싸움을 잘 한다든가, 손바닥으로 바위라도 단번에 쪼갤 수 있는 바람을 내뿜을 수 있다든가 …. 그들은 대개 보검(寶劍)을 등에 지니고 다닌다. 얼

그림 · 박구원

굴에서부터 표가 나는데,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고, 말이나 표정에서부터 벌써 상대를 위압(威壓)한다.

그런데, 무협지는 가르쳐준다. 진짜 고수는 따로 있음을. 겉으로 볼 때, 전혀 고수같지 않고, 심지어는 무술 자체를 전혀 알 것 같지도 않은 백면서생(白面書生)이 알고 보니까, 비할 데 없는 무술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

영화 〈취권(醉拳)〉도 그런 이야기다. 술에 고주망태가 된 사람이라면, 자기 몸 하나 가누기 어렵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당연히 어떤 고수라도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무술을 못하기 마련일 것이고, 상대에게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더 강력한 무술을 발휘할 수 있다니.

이러한 반전(反轉)과 역설(逆說)이 10대 중반의 나를 사로잡았다. 나중에 내가 알게 된 것은, 그러한 무협지의 진짜 고수를 낳은 철학이 〈노자〉에 나온다는 점이었다.

"화광동진(和光同塵)"이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진짜 고수'들을 낳은 어머니였다. 무술을 많이 연마하면 실력이 늘어난다. 그것이 '빛'이다. 그런데 진짜 고수는 그 빛을 누그러뜨려서(和), 남들로 하여금 자기의 무술실력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스스로는 전혀 무술을 모르는 사람이나 무술실력이 낮은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 마치 스스로를 '먼지'와 같이 낮은 존재로 만들어서 말이다.

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노자의 화광동진은 우리 불교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 아닌가. 선사(禪師)스님들이 "저자거리에 들어가서 손을 쓴다"라는 의미의 입전수수(入廛垂手)를 가장 궁극적인 이상으로 삼았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경허 스님같은 분은 "나는 성품이 화광동진을 좋아한다"라고 고백했다.

성문의 법을 듣는 보살

그런데 나는 오늘 또 알게 된다. 그러한 화광동진이 〈노자〉에만 있는 것도, 선사스님들만의 전유물만은 아니라는 것도.

〈소품 반야경〉에서는 더 이상 물러남이 없는 경지(이를 avaivartika/아유월치/아비발치로 말한다)에 이른 보살들도 성문(聲聞)들이 법을 설하는 것을 듣는다고 말한다. 성문의 가르침은 물러섬이 없는 경지에 이른 보살은 이미 예전에 다 학점을 따서 졸업한 것 아니던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보살이니까, 당연히 성문의 가르침은 이제 더 이상 들어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러섬이 없는 경지에 이른 보살 역시 스스로 몸을 낮추어서 성문의 법석(法席)에 참여한다. 진짜 보살이기 때문인데, 그는 성문의 이야기나 보살의 길에서 듣는 이야기나 근본은 하나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원효 스님이나 경허 스님처럼, 저자거리에 내려온 스님들을 좋아하는 나의 취향은, 어쩌면 저 무협지 시절을 통해서 심어진 DNA같기도 하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2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1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1월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최신판"
띠별(十二支神像型)삼재풀이용봉

호신진언【옴치림】

※ 속지 6장식 들어있음!
2013년(계사년)부터 들어오는 삼재해당자(돼지, 토끼, 양띠)들께서는 본인의 띠와 같은 봉투에 속옷하나 넣고, 이수에 따라동전을 넣고 스님들이나 법사, 보살님들에게 전달한 후 삼재를 풀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청담아트월드 社 www.cdsa.co.kr
주문전화 : 031)912-7114

◆ 90부 이상 우송!
(일반 신도분들은 개별적으로 근처 불교 만물상에서 구입하시오!)
계좌번호 : 638701-01-163513 (국민은행) 예금주 : 청담사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백련암
● 창건주 : 법련 (오영자)
● 주 소 :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산 105-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일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법하